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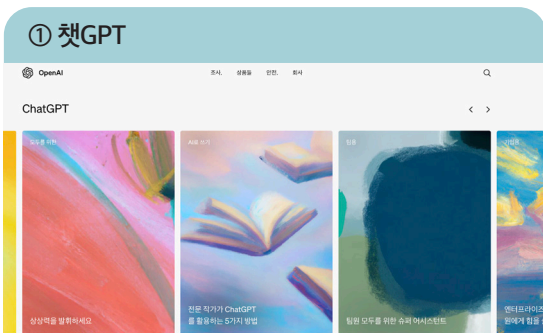


인공지능을 활용한 카피라이팅

인공지능 카피라이팅의 도구들

글 |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kimthomas@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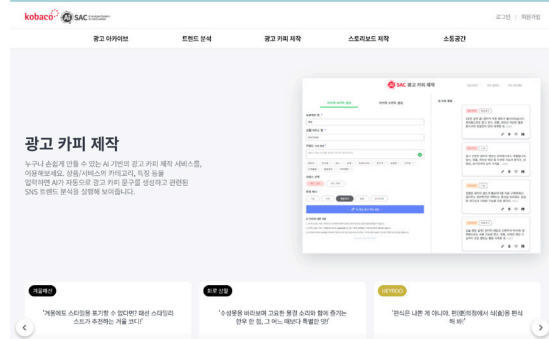
커피를 써주는 인공지능(AI) 카피라이팅 도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대략 200여개가 있다. 인공지능이 직접 커피를 써주는 솔루션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다. 여러 AI 카피라이팅 도구 중에서 커피를 쓰는 수준과 카피 생성 가짓수를 기준으로 비교적 주목할 만한 도구는 대략 7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챗GPT부터 국내에서 개발한 카피라이팅 도구까지 일곱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챗GPT(Chat GPT)는 오픈AI에서 개발한 자연어 처리(NLP) 방식의 인공지능 모델이다. 챗GPT는 카피라이팅에 특화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광고 카피라이팅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활용할 수 있다. GPT-4의 성능은 현재의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서 동종 최고 수준이다.

챗GPT는 글, 문장, 오디오, 이미지 같은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매개변수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이다. 상당한 수준의 카피를 생성하지만 때로는 한국인의 정서와 맞지 않는 카피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 카피라이터는 카피를 고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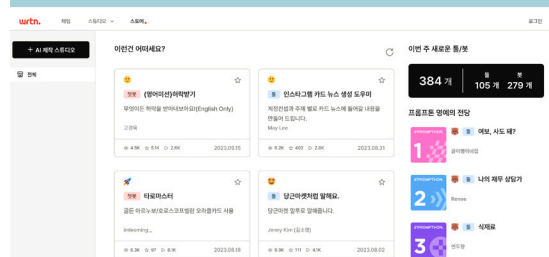
② 아이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서 개발한 광고 창작 지원 플랫폼 아이작(AiSAC)은 215만 건 이상의 광고 자료를 학습해 순식간에 카피를 쏟아낸다. 아이작을 활용하면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분석, 광고 카피의 생성, 객체 정보의 식별, 스토리보드의 제작 같은 모든 광고 제작이 가능하다.

상품과 서비스 범주, 상품과 서비스명, 키워드를 입력하면 아이작이 적절한 광고 카피를 자동 생성해주며, 생성된 카피는 카피라이터가 직접 수정할 수도 있다. 아이작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콘텐츠에서 광고 카피에 적합한 이미지를 추천해주기도 하니 광고 콘티도 구체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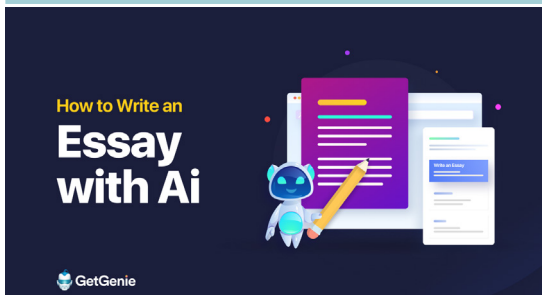
③ 워튼



워튼(wrtn)은 한국어 맞춤형의 카피라이팅 도구로,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해 블로그 포스팅부터 이메일 작성과 보도자료 작성까지 다양한 형태의 글을 쓸 수 있다. 제품명, 핵심 내용, 톤 앤 매너를 선택하

고 버튼을 누르면 카피가 생성된다. 워튼이 생성하는 카피는 아이작보다 조금 길이가 길다. 그리고 선택한 톤 앤 매너에 알맞게 카피를 생성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웹에서 바로 카피를 쓸 수 있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며 한국어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끔씩 사실과 다른 카피를 생성하거나 외국어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④ 겻지니



겻지니(GetGenie)는 카피 쓰기를 비롯해 홍보용 보도자료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글을 생성해준다. 겻지니에는 37개 이상의 카피 템플릿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카피를 원하는 대로 생성해준다. 이용자는 생성해주기를 바라는 카피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공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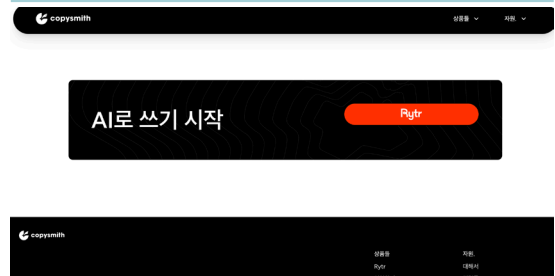
겻지니는 원클릭으로 블로그 게시물을 생성하고, 키워드 조사 및 경쟁사 분석을 위한 심층 데이터를 추출한다. 검색엔진최적화(SEO)에 적합한 카피 결과물도 생성할 수 있다. 겻지니는 소셜 미디어와 이메일 카피라이팅의 템플릿이 풍부하기 때문에 AI 카피라이터이자 AI 콘텐츠 작가라 할 수 있다.

⑤ 재스퍼



재스퍼(Jasper)는 다른 인공지능 카피라이터와 마찬가지로 GPT-3 기술을 활용하는 자연어 처리(NLP) 소프트웨어로, 독특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카피라이팅의 모든 필수 템플릿이 있다. 재스퍼는 카피라이터가 요청하는 지침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소셜 미디어 카피, 랜딩 페이지 카피, 이메일 카피, 제품 설명 카피 같은 다양한 카피 쓰기를 할 수 있다. 카피의 톤 앤 매너(tone & manner)를 조절할 수 있고 콘텐츠 템플릿을 50개 이상 제공하며, 다국어의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재스퍼의 장점이다.

⑥ 카피스미스



카피스미스(CopySmith)는 리드를 생성하고 리드를 유료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마케팅 카피를 생성할 수 있다. 리드 생성(lead generation)이란 소비자가 직접 어떤 평이나 정보를 남기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리드 생성 전략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카피라이터는 카피스미스를 활용해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태그라인, 보디 카피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용하기 쉽고 지시어가 간단하며 콘텐츠를 관리하기 쉽다. 카피를 수정하면서 카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카피스미스의 장점이다.

⑦ 카피.에이아이

카피.에이아이(copy.ai)는 한국어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키워드를 넣으면 자동으로 카피 초안을 써주기 때문에 영어 카피를 쓸 때 도움이 된다. 영어 카피를 쓰거나 영문 이메일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카피.에이아이는 블로그 개요, 블로그 아이디어, 소셜 미디어 게시물, 이메일 사본, 웹사이트 사본, 비디오 콘텐츠를 포함하여 카피라이팅에 관련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한다. 유료 서비스를 활용하면 25개 언어를 지원받을 수 있고, 45개의 다양한 카피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어 지원이 안 되고 종종 부정확한 카피를 생성하는 것은 단점이다.

이밖에도 변환 카피와 동영상 자막 및 스토리 플롯 같은 콘텐츠를 생성하는 동시에 카피 스타일을 제공하거나, 짧은 시간에 상당한 수준의 카피를 써주고 자동으로 문법을 수정하는 인공지능 도구가 있다. 쉽고 빠르게 카피 콘텐츠를 생성하는 동시에 카피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도구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에서 소개한 여러 카피라이팅 도구 중에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을 써도 무방하다.



필자 | 김병희

현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로서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 부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카피라이팅 신론: 챗GPT를 활용한 카피 쓰기」를 비롯해 6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